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소설 교육 연구 -기독교 대학 핵심 교양 교과목을 중심으로

조경덕 평택대 교수

I.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대학에 교양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문학 교과목에서 대학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종합 대학에서 ‘기독교’는 인기 있는 기표가 아니다. 대학의 설립 이념으로서 ‘기독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불신 풍조가 작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다. 그럼에도 기독교 대학들은 채플, ‘기독교’ 관련 필수 과목, ‘기독교’ 관련 핵심 교양 과목 등을 비롯하여 교양 과목 영역에 다양하게 ‘기독교’ 관련 과목을 편성해 놓고 있다.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한 불만이 높다 하더라도 기독교 대학은 대학의 설립 이념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기독교 대학은 설립 이념에 대해 교육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정신을 공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편적인 언어로 말하되 지상의 척도로 측량할 수 없는 ‘기독교’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은 기독교 대학 당국이 당면한 교육 과제 중 하나다.

평택대학교는 19세기 말 미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전도자이자 해외 선교 운동의 선구자로 꼽히는 아더 피어선(Arthur Tappan Pierson, 1837-1911) 박사를 기념하여 1912년에 세운 피어선 기념 성경학원을 모태로 한 종합 대학이다.¹⁾ 평택대학교의 교양 교육 과정은 기초 교양 과목으로 편성된 ‘대학 필수 교양’, 핵심 교양 과목으로서 배분 이수제로 수강하는 ‘PTU 교양’, ‘교양 선택’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 교육 당국은 7개의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편성하였다.

1) 조상열, 『피어선기념성경학원』, 대학기독교서회, 1910, 78면.

7개의 핵심역량²⁾ 중 대학의 설립 이념과 밀접하게 관련된 핵심역량은 ‘인성 역량³⁾이다. 대학의 교육 당국은 ‘기독교’의 성경 교육이 ‘인성 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평택대학교 교양학부인 피어선칼리지는 대학 핵심역량의 ‘인성’을 ‘이타적 인성’으로 해석하였다. ‘이타적’이라는 말이 ‘기독교’ 이념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는 사회에서 ‘기독교’가 강조할 수 있는 품성이라고 본 것이다.

평택대학교 교양 교육 과정에서 ‘기독교’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과목인 「경건 실천」과 2학점 필수 과목인 「기독교 알기」가 있다. 「경건 실천」은 채플(chapel)이며 「기독교 알기」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과목이다. 그리고 선택적 필수 과목으로 편성된 핵심 교양 영역인 PTU 교양의 ‘심(心)’ 영역에 ‘인성’과 관련한 교과목을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문학과 기독교」라는 과목이 있으며 문학 텍스트를 통해 ‘기독교’와 ‘인성 역량을 교수하려는 교육 목표를 담고 있다. 즉, 문학 작품을 함께 읽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삶의 문제를 살펴보고 아울러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수업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학 수업에서 ‘기독교’라는 기표는 학생들에게 그다지 매력이 없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교수자로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여느 기독교 대학과 마찬가지로 평택대학교가 설립 이념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가치다. 구한말 ‘기독교’의 교세(敎勢)는 확산되었는데 그 동력은 ‘기독교’ 신앙이 민족의 운명을 돌이킬 수 있다는 민중들의 바람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어선 기념 성경 학원 역시 그 바람을 안고 설립되었다. 성경 학원은 당대에 ‘복음 전도와 성경 교육’(Biblical education for evangelism)이라는 목적을 갖고 동시에 ‘민족과 사회를 위한 봉사’라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하였다. 3·1 운동과 6·10 만세 운동 때 송창근, 유재현 등 성경 학원 재학생들이 항일 저항 운동에 참여하였고 항일 민족 의식이 강했던 학감들의 지도를 받으며 진행되었던 1920-30년대 성경 학원 학생들의 전국 순회 전도 활동은 민족 개량을 목적으로 한 농촌 계몽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⁴⁾ 그런 점에서 평택대학교 교수자로서 ‘기독교’는 수업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전해야 할 가치이다. 문제는 어떻게 전하느냐다.

2) 인성, 의사소통, 지식융복합, 협업, 글로벌, 문제해결, 개척·도전 역량이 있다.

3) 2010년부터 2014년까지 ACE 대학의 핵심역량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인성 역량’은 ‘창의 융합 역량’과 ‘글로벌 역량’에 이어 세 번째로 강조하는 역량이었다. 이민정, 『ACE 사업 참여 대학의 핵심역량 및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 2016, 37~38면.

4) 이덕주, 「피어선 기념 성경 학원 설립과 초기 역사(1911-1945년)」, 『복음과 신학』 12, 평택대학교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2010년 12월, 374~375면.

하비콕스(Harvey Cox)는 1980년대 초, 하버드 대학의 학부에 신설된 ‘윤리적 사유(Moral Reasoning)’ 분과에 예수에 관한 과목을 편성하자는 제안에 응하며 「예수와 윤리적 삶」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였다. 하버드 대학이 ‘윤리적 사유’ 분과를 창설한 이유는 학생들이 남북 전쟁의 원인에 대해 잘 알고 훌륭한 화학 실험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윤리적 책임 아래 실행하지는 못한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었다.⁵⁾ 그는 예수를,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촉구하는 랍비(rabbi)로 설정하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을 ‘지금, ‘이 곳’에서 논의해야 할 생생한 텍스트로 만들어 냈다. 기독교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현실에서 살아가며 부딪치는 문제와 유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⁶⁾

이때 하비콕스가 주목한 것은 복음서 텍스트에 담겨 있는 ‘이야기’였다. 그는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논의에 착안하여⁷⁾ 예수의 가르침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윤리적 사유를 하고 나아가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교실 안에서 실현하였다. 누스바움은 시카고 대학 로스쿨에서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문학을 가르쳤다. 로스쿨 학생과 함께 문학 작품에서 공적인 윤리를 찾으며 그들이 미래에 법정에서 논리를 보존하면서 공감의 정신을 팽개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으려 한 것이다. ‘문학적 상상력(literary imagination)’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누스바움에 따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역경을 해결하고자 씨름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능력⁸⁾”이다. 다시 말해 “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⁹⁾”이다.

이들의 논의를 따르자면, 우리는 보편적인 언어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야기를 담은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하여 타인의 삶을 상상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평택대학교 ‘PTU 교양’에 속한 과목인 「한국 문학과 기독교」에서는 과목 이름에 ‘한국 문학’이라고 텍스트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 수업 초반에 미국 소설인 레이먼드 카버(Raymond Carver)의 「대성당(Cathedral)」을 다룬다. 이 작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이라는 보편적 윤리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기독교’가 암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과목의 전체 취지를 학생들에게 요령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텍스트이기

5) 하비 콕스 지음, 오강남 옮김, 『예수 하버드에 오다』, 문예출판사, 2010, 11~12면.

Harvey Cox, When Jesus Came to Harvard: Making Moral Choices Today,

6) 위의 책, 42면.

7) 위의 책, 48면.

8) 마사 누스바움 지음, 박용준 옮김, 『시적 정의』, 궁리, 2013, 16면.

Martha C. Nussbaum, Por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 Beacon Press, 1995.

9) 위의 책, 32면.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수업 시간에 소설 「대성당」을 다루면서 ‘인성 역량’과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경계를 허문 만남 -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1981)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은 『어틀랜틱Atlantic』 1981년 9월호에 발표된 소설이며 1982년 전미 최우수 단편소설로 선정되었다.¹⁰⁾ 이 작품은 작중 화자, ‘나’가 시각 장애인 로버트(Robert)를 이해하고 그와 공감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나’의 아내는 시각 장애인에게 글을 읽어주는 일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로버트와 만났다. 로버트는 아내와 친밀한 교감을 나누는 사이인 데다 시각 장애인이어서 ‘나’는 로버트를 만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그러한 ‘나’가 로버트와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며 로버트를 이해하며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었기에 독자는 이러한 ‘나’의 변화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나’가 로버트와 공감하게 된 까닭은 무엇보다 로버트의 품성과 인격 때문이다. ‘나’는 시각 장애인을 가까이 본 적이 없었다. 영화에서 본 것이 경험의 전부이다. ‘나’가 생각한 시각 장애인은 검은 색안경을 껴서 연기를 보지 못하기에 담배를 피지 않고 앞을 보지 못한다는 콤플렉스에 주눅이 들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 만난 로버트는 그렇지 않았다. 우선 검은 색안경을 끼지 않았다. 그리고 적극적이었으며 자신만만했다. 담배를 피웠고 ‘나’가 권유한 마리화나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 음식을 “계절스럽게” 먹었으며 ‘나’를 “이 사람아”(Bob)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자신은 언제든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자세를 지닌 사내였던 것이다.

아내는 ‘나’와 재혼이었다. 그녀는 첫사랑이었으며 군산복합체에서 근무한 공군 사관과 이혼했다. 아내는 시각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그만둔 후에도 녹음 테이프를 이용하여 로버트와 교류를 하였다. 이전 남편과 헤어진 일들, 현재 남편인 ‘나’와의 만남과 관련된 내밀한 일들을 아내는 로버트에게 시시콜콜히 말했다. 그만큼 아내에게 로버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대성당」에서 ‘나’와 로버트의 ‘만남’은 앞서 ‘나’의 아내와 로버트의 ‘만남’의 위에서 이루어진다. 흥미롭게도 이 ‘만남’들에서 ‘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만남들, 특히

10) 캐롤 스크레니카 지음, 고영범 옮김, 『레이먼드 카버: 어느 작가의 생』, 강, 2012, 702면.

‘나와 로버트의 ‘만남’에 배경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만남’과 ‘기독교’ 배경을 중심으로 「대성당」을 살펴보려고 한다.

i. 손과 손의 만남

「대성당」에서 ‘만남’은 ‘손’으로 표상된다. 먼저 시각 장애인 로버트와 작중 화자, ‘나’의 아내의 ‘만남’이다. ‘나’의 아내는 각종 보고서를 읽어 주는 일로 로버트를 만났다. ‘나’의 아내가 일을 그만둘 때 로버트는 얼굴을 만져도 되는지 묻는다. ‘나’의 아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로버트는 아내의 얼굴과 목을 만진다. 아내는 일 년에 한두 편씩 시를 쓰는데 ‘나’에 따르면 그것은 대개 자신에게 중요한 일어난 후에 하는 행동이다. 아내는 로버트가 자신의 얼굴을 만진 경험을 시로 쓴다.

우리가 서로 사귀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내게 그 시를 보여줬다. 그 시에서는 그녀는 그의 손가락들과, 그리고 그 손가락들이 자기 얼굴 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떠올렸다. 그 시에서 그녀는 그때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그 맹인이 코와 입술을 만졌을 때 마음 속으로 무엇이 지나갔는지 말하고 있었다. 내가 변변찮은 시라고 생각했다는 것만은 기억난다. 물론 그걸 말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내가 시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 뭘 읽으려고 할 때 내가 시집을 펼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만은 인정한다.

어쨌든 그녀가 몸을 허락한 첫 남자, 그러니까 사관후보생은 어린 시절부터 연인이었다. (후략)¹¹⁾(강조는 인용자)

로버트가 아내의 얼굴과, 목을 만진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만의 특별한 작별 의식이었다. 아내는 그 작별 의식을 흔쾌하게 받아들였다. 아내 입장에서 그 의식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의 유대와 교감이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아내의 경험에 대해서 ‘나’는 불쾌하다. 아내의 시를 ‘변변찮은 시’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자신의 시 읽기 경험에 대해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 놓는 것을 보면 그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화제를 전환하며 아내의 전남편을 수식할 때 사용한, “어쨌든 그녀가 몸을 허락한 첫 남자”라는 표현이다. 말 그대로 공군 사관이었던 아내의 전남편은 “그녀가 몸을 허락한 첫 남자”다. 그러나 이 표현이 로버트가 아내의 얼굴과 목을 만진 장면을, ‘나’가 상기한 다음에 나온 것을 보면 ‘나’는 아내가 로버트에게 “몸을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1) 288~289면.

아무튼 ‘나’는 로버트가 이래저래 불편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 두 번째 ‘손’ 장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불링을 치러 간다고 하거나 로버트의 아내의 이름이 ‘뷰라’(Beulah)라는 것을 듣고 ‘니그로’(Negro)라며 인종차별적 용어를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 아내는 로버트가 ‘나’와 아내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아내 뷰라를 임파선 암으로 떠나 보내고 시작한 여행의 일환이라고 하며 로버트에 대해 ‘나’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자 ‘나’는 로버트를 이해하고자 ‘상상’을 한다.

여기까지 듣게 되자, 그 맹인이 약간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살았을 삶의 행로가 얼마나 가엾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여인을 상상해보라. ... (중략)... 그러다가 죽음 속으로 빠져들던 그 순간, 그녀의 손 위엔 그의 손이, 그의 먼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을 테니—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상상일 뿐이지만—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이랬을 테지.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나는 무덤으로 직행하고 있다고.¹²⁾

‘나’는 아내에게 로버트와 뷰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약간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현재 로버트의 처지도 안타깝거니와 그간의 결혼 생활, 즉 서로 보지 못하고 살며, 사랑을 했다는 것에 대해 불쌍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로버트와 뷰라의 결혼 생활과 뷰라가 임종할 때의 장면을 ‘상상’한다. ‘상상’의 장면은 임종을 할 때 두 사람이 손과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다. 하필이면 손을 맞잡는 것을 떠 올린 것은 그 손 중의 하나가 아내의 얼굴을 만졌던 로버트의 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이 갖는 의미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손이 갖는 의미는 다르다. 시각 장애인은 손의 촉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감지한다. 뷰라의 손은 맞잡은 손이 로버트의 손이기에 더 많은 것을 표현하려 했을 것이고 로버트의 손은 그 표현들을 충분히 감지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나’의 ‘상상’은 로버트를 만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면 ‘나’는 시각 장애인 로버트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세 번째 언급할 ‘손’ 장면은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러 등장한다. 작품의 결론을 이루는 부분이다. ‘나’와 로버트는 함께 밥을 먹고, 담배를 피고, 마리화나를 핀다. 그리고 ‘대성당’에 대해 소개하는 티브이 프로그램을 함께 본다. ‘나’는 티브이 화면에 흐르고 있는 ‘대성당’의 모습을 매우 열심히, 성실하게 로버트에게 말로 설명한다. 그리고 결국 화면으로 보고 있는 ‘대성당’을

12) 292~293면.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다. 이때 로버트는 두꺼운 종지와 펜을 가져와 달라고 ‘나’에게 부탁한다. ‘나’는 두꺼운 종지가 집에 없자, 양파를 넣어 둔 쇼핑백을 가지고 올 정도로 로버트의 청을 성심성의껏 수행한다. 그리고 로버트의 요구에 따라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어린 아이의 손을 어른이 잡고 글을 쓰는 것처럼 ‘나’는 로버트의 펜 든 손을 잡고 티브이에 나오는 ‘대성당’의 모습을 그린다.

맹인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대성당을 그리고 있어. 나하고 이 사람이 함께 만들고 있어. 더 세게 누르게나.” 그가 내게 말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는 말했다. “좋아. 이 사람, 이제 아는구먼. 진짜야. 자네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제 순풍에 돛을 단 격이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 조금만 더하면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진짜 만들게 되는 거야. 팔은 아프지 않은가?” 그가 말했다. “이제 거기에 사람들을 그려보게나. 사람들이 없는 대성당이라는 게 말이 되겠어?”

로버트와 ‘나’가 손을 잡는 장면은 로버트가 주도한다. 그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로버트의 손을 잡고 대성당을 그린다. 눈을 감으라고 하여 눈을 감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거, 진짜 대단하군요.”(“It’s really something”)이라고 말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느낀 것이다. 추측해보자면 눈을 감았으니 시각 장애인 로버트가 살아가는 방식을 살짝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은 누군가와 교감을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자 입장에서 여기서 ‘나’가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림짐작할 따름이다. 학생들도 이 부분을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 로버트와 ‘나’가 공감하는 장면이라는 것은 알아도 그것이 그다지 인상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많다.

이때 작품과 독자인 학생들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마치 ‘대성당’을 말로 설명할 때 로버트와 ‘나’가 경험한 어려움과 비슷하다. 이 장면에서 일어난 일을 공감하려면 로버트와 ‘나’ 사이에 일어난, 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이 작품에 나오는 ‘기독교’ 장면을 살펴보자.

ii. 만남의 배경으로서 기독교

「대성당」에서 ‘기독교’는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처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로버트와 뷰라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이다. 하객은 주례를 서는 목사와 그의 부인, 둘뿐이었다. 이것은 작중에서 아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요약 제시로 표현된다. 이때 강조점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이 조출했다는 것에 있다. 미국에서 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렸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문화적인 의미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나’와 로버트의 ‘대성당’에 관한 티브이 시청이다. 다음은 그와 덧붙여 나오는 로버트와 ‘나’의 대화 내용이다.

“괜찮네. 이 사람아.” 맹인이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뭘 좀 물어봐도 되겠지? 예, 아니요라고만 말하면 되는 간단한 질문이네.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지. 따지는 건 아니야. 자네가 여기 주인이니까. 나는 그저 자네에게 그게 어떤 형태로든 신앙심이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야. 이런 걸 물어보면 실례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가 고갯짓을 볼 수는 없었다. 맹인에게는 웅크나 고갯짓이나 마찬가지로. “뭘 믿는 건 없다고 봐야겠죠.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래서 가끔은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¹³⁾

로버트의 질문은 ‘나’가 열심을 다해 ‘대성당’을 말로 설명한 다음에 나온 것이다. 즉 ‘나’는 마음 속에 있던 로버트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었으며 로버트는 자신에게 ‘대성당’을 언어로 설명해 주려 애쓰는 ‘나’의 노력을 본 후다. 로버트는 ‘나’에게 신앙심이 있느냐고 묻는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묻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시시껄렁한 대화와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진지하면서 현재 삶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으로서 삶의 본질에 다다른 질문이기 때문이다. ‘나’는 신앙이 없다고 답하면서 “가끔은 힘듭니다.”고 답한다. 삶의 힘듦을 고백한 것이다.

로버트의 장점은 당당하며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했다. 덧붙여 들 수 있는 장점은 그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말을 잘 듣고 좋은 말을 건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혹 상대방이 꺼릴 수도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다. ‘나’는 ‘대성당’을 설명하면서 “그 옛날에는 모두의 삶에서 하느님이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대성당을 지어놓은 걸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한다. 이 말을 근거로 말하면 ‘나’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고 있으며 그래서 힘들다고 로버트에게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중요한 일부분”이었던 시대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있었던 사람에 대해 부러움을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대성당’에서 ‘기독교’는 종교성이 표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을 진정성 있게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 로버트와 ‘나’의 장면은 이러한 과정을 경유하여 나온 것이다. 위와 같이 ‘만남’과

13) 레이먼드 카버 지음, 김연수 옮김, 『대성당』, 문학동네, 2014, 307면

‘기독교’라는 주제어로 「대성당」을 읽었을 때 감동을 받는 학생도 있고, 심드렁한 학생도 있다. 후자의 학생들은 손을 맞잡고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 어떻게 ‘만남’을 경험하고 ‘대단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카버의 「대성당」이 우리 수업에 적합한 텍스트로서 좋은 점은 상호 텍스트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로댕의 1908년 작품 ‘대성당’(Cathedral)이다.

Ⅲ. 하늘로 향한 너와 나의 손 - 로댕의 <대성당>(1908)

로댕의 작품 ‘대성당’은 대성당의 건물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로댕의 조각은 “모델의 외형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내적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로댕은 ‘대성당’의 ‘내적 진실’을 어떻게 표현하였을까. 로댕은 타인과 타인의 손과 손이 서로 맞잡으려 하는 것을 포착하여 조각한 작품에 ‘대성당’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 손들은 고딕 양식의 대성당 첨탑(尖塔)의 방향처럼 하늘을 향하고 있다.



그림 1 로댕의 <대성당> 1908

로댕의 ‘대성당’은 추상적인 성격을 지녔다. 카버의 「대성당」은 그에 비해서는 구체적이다. 무엇보다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조각의 추상성은 얼핏 보기에 엉뚱해 보이는 해석에 이른다.

<성당Cathédral>에서는 성이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두 개의 오른 손이 성당의 천장의 둥근 맞보와 같은 형태로 서로 닿지 않은 채 불룩한 공간을 이루고 있다. 이 형상은 이 손들의 주인공인 남녀가 서로 몸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닿고 싶어 하는 그들의 욕망과 그만큼의 주저함을 상상하게 한다. 두 개의 손의 자세가 에로티시즘의 문맥(59)속에서 읽어내도록 그 표현성을 발휘하는 것이다.¹⁴⁾

박숙영은 로댕의 ‘대성당’에 성이 암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남자와 여자의 손이 서로

14) 박숙영, 『프랑스 인체 조각』, 학연문화사, 2011, 58면.

간절히 맞닿으려는 장면을 형상화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대성당’만 놓고 보았을 때 이러한 해석은 엉뚱해 보인다. 그러나 로댕의 작품 이력을 따라가며 볼 때 이러한 해석은 타당성이 있다. 로댕은 성적인 조각품을 다수 만들었으며 많은 경우 손은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매개체였던 것이다. 물론 “손가락이 맞닿은 아래쪽 공간이 대성당의 천장을 연상”¹⁵⁾시킨다, “오늘날 세계적인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 <대성당>에서 로댕은 두 개의 손을 조합하여 대성당의 건축 양식을 형상화하였다”¹⁶⁾, “<성당(聖堂)>이 모두고 있는 손들은 기도의 열정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의 느린 동작은 정신과 마음 속으로 신(神)을 찬양하는 노래처럼 위로 들려진다”¹⁷⁾ 등 제목에 비추어 조각의 형상을 설명한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기는 하다.

흥미롭게도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은 이러한 <대성당>의 해석을 아우르고 있다. 로버트가 손으로 아내의 얼굴을 만질 때 성적인 측면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화자 ‘나’는 그것을 아내가 “몸을 허락한” 행위로 생각을 하였다. 또한 뷰라가 임종 시, 로버트와 손을 잡는 장면은 남녀 간 간절한 사랑이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러한 의미가 마지막, 로버트와 ‘나’가 손을 잡는 대목에서는 대성당과 관련된 의미로 전이(轉移)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레이먼드 카버는 로댕의 조각 <대성당>이 갖는 함의를 소설로 매우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카버가 로댕의 작품을 보고 소설로 썼다는 것을 전제하였을 때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서 이 부분은 토론의 주제다. 즉, 레이먼드 카버는 우연히, 로댕과는 상관없이 ‘대성당’을 손과 관련한 이야기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로댕의 <대성당>을 감상하고 그것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이다. 덧붙여 어떻게 보는 쪽이 두 작품의 가치를 더 높여줄까? 에 대해서도 묻는다. 어느 쪽이든 두 작품의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80년 거리를 두고 ‘대성당’이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 혹은 사랑으로 우연히 표현했다는 것으로 로댕의 작품과 카버의 작품은 서로 빛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후자라 한다면 카버가 풀어낸 서사적 상상력이 빛을 우선 발하겠지만 그 빛은 곧 로댕의 <대성당>을 되비치기에 두 작품 가치의 상보적 상승 효과는 전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조각과 서사 작품의 차이는 성격을 돌아볼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대성당’이라는 ‘기독교’ 이념이 조형된 공간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즉 우연이냐,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연관성이 있느냐를 따져 물으면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15) 레이철 코벳 지음, 김재성 옮김, 『너는 너의 삶을 바꿔야 한다: 릴케의 로댕, 그 절대성과 상실에 관하여』, 뮤진트리, 2017, 249면.

16) 라르스 피퍼 지음, 『오귀스트 로댕』, 예경, 2008, 30면.

17) 이오넬 지아누 지음, 김윤수신인영 공역, 『오귀스트 로댕』, 열화당, 1985, 85쪽.

수 있다는 것이다.

가.

기독교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저는 이 두 작품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대성당의 화려한 이미지보다 교류를 강조함과 동시에 기도에 의미를 두지 않음은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다가서는 손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임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학번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유○○

나.

저는 로맹의 대성당이 함의하는 바가 **“종교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구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한 기도나 거창한 십일조 없이도 온정만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 레이먼드 카버도 이와 같은 뜻을 글에 담기 위해 일부러 로맹의 작품과 같은 ‘대성당’으로 제목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20학번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지○○

다.

로맹의 작품에선 일단 두 손 다 오른손인 걸 보아하니 두 명의 손일 거라 짐작하고, 그 두 명의 손이 마주함으로써 내적인 면에서 무언의 일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이지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공감하는 듯한 느낌이 교회의 근본적 성질과 닮아** 있어 대성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20학번 광고홍보학과 공○○
(강조는 인용자)

인용문은 ‘E-Class’에서 앞에 제기한 질문을 제기하고 받은 답이다. A4 1/2 분량으로 답을 하였는데 그 일부를 제시하였다. 위에 인용한 학생들의 글은 ‘기독교’, 교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다가가는 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구원”,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공감하는” 것 등으로 표현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서로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한 것이다. (가)와 (나)는 기존 ‘기독교’를 비판하며 로맹과 카버의 작품에 새겨진 사랑을 옹호했다. (나)는 특히 ‘거창한 십일조’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다)는 ‘어루만짐’, ‘공감’이라는 어휘를 두드러지게 거론함으로써 ‘기독교’가 지니는 가치가 따뜻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사고 방향은 로맹과 레이먼드 카버의 작품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높이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대성당’의 외양을 작파한 후에 그들은 온기(溫氣)가 담긴 ‘손’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보고 해석한 것처럼 ‘대성당’의 외양이 ‘기독교’의 본질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의 일들’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기독교의 허식은 분명 비판해야 할 것이지만 그 비판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결론으로 맺으면 ‘기독교’ 세계관의 일면을 가르치는 수업으로서는 책임이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는 말은 아름다우며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라.

좀 더 깊게 보자면 로댕은 종교적으로 접근하여 사랑과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나아가 **영적 교감까지 이뤄낼 수 있는 ‘손’이라는 매개체로 대성당의 본질적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했던** 게 아닐까요. 이에 카버는 로댕의 메시지를 받고 같은 제목의 대성당이라는 문학 작품으로 보답을 합니다.

20학번 아동청소년상담학과 김○○

마.

레이먼드 카버 역시 한 사람의 손이 아닌 주인공인 ‘나’와 시각 장애인 로버트가 손을 맞대는 장면이 있다. 이를 통해 두 작품이 우연이 아닐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로댕의 작품이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면 레이먼드 카버의 작품은 소통, 교감을 드러낸다. 이것은 대성당을 이해하고 그리는 것이 어려운 로버트를 위해 함께 그림을 그려주는 ‘나’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사람 이상의 힘을 합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대성당)를 만들 수 있음**을 이 작품에서 의도한 것 같다.

-19학번 간호학과 조○○
(강조는 인용자)

위에 인용한 학생들도 앞에 든 학생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대성당’과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라)는 ‘손’이 사랑과 생명을 전달하고 나아가 ‘영적 교감’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매개로 설명하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감싸고 있는 또 다른 사랑이 있음을 전제로 한 진술이다. 조○○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하여 사람과 사람의 소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후자의 의견들이 ‘기독교’적으로 온당하다고 하여 수업 시간에 이 학생들의 의견이 앞의 학생들의 의견보다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전자와 후자, 두 갈래 의견이 모두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후자는 또 다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치면 상대주의적이 관점에서 모든 종교의 본질을 ‘사랑’이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될 수 있다. ‘기독교’의 가치가 외면받는 상황에서 본디 본질이 ‘사랑’이라고 확인하는 것은 소중한 작업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즉 ‘기독교’ ‘사랑’의 원류(原流)는 하나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이 ‘설명’은 앞서 ‘사랑’과 차이를 드러내려는 것이지 우열을 표시하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카버의 「대성당」 읽기가 끝나고 작품에 대해 무언가 답답함이 남아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 학생들에게 로댕의 「대성당」을 공개하면 학생들은 그것에 대한 놀람과 더불어 해석의 ‘답답함’을 해소한다. 직관적으로 학생들은 타인과 타인이 서로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이 하나님을 향한 노력과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 예배를 위한 장소인 「대성당」이 지향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인식에 이르는 것이다. 조각가 로댕과 소설가 레이먼드 카버의 「만남」에 대한 놀람은 ‘기독교’에 대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경계’도 허문다. 우선 ‘기독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끈다. 그러면서 종교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고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점에서 교양 문학 과목에서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은 좋은 텍스트이다.

IV. 나가며

지금까지 기독교 대학의 문학 관련 교양 과목에서 ‘인성 역량’ 함양과, ‘기독교’ 교육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택대학교 교양학부의 핵심역량 중, ‘이타적 인성 역량’은 ‘인성 역량’을 ‘기독교’와 관련하여 해석한 것이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은 사람과 사람의 경계를 넘은 ‘만남’의 장면을 보여준다. 암시적이고 희미하지만 「대성당」의 ‘만남’은 ‘기독교’에 감싸여 있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문학적 상상력이 “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¹⁸⁾이라고 말했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에는 비장애인 ‘나’가 시각 장애인 로버트를 이해하는 노력, 시각 장애인 로버트가 비장애인 ‘나’의 결핍을 이해하고 안으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시각 장애인 로버트가 비장애인 ‘나’의 교사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흥미롭다. ‘나’의 아내는,

18) 마사 누스바움, 32면.

로버트의 방문이 탐탁지 않은 ‘나’에게 로버트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모두 동정해야 할 조건들이다. 그러나 실제 만남에서 로버트는 그러한 ‘기대’를 ‘배반’한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콤플렉스로 생각지 않으며 손님으로 와서 주인인 ‘나’를 배려한다. 그 당당한 삶의 자세가 진정한 ‘만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 다른 ‘만남’, 레이먼드 카버와 로댕의 ‘만남’에도 우리는 주목을 요한다. 로댕의 작품 역시 손과 손이 맞잡는 것을 통해 경계를 넘은 타인과 타인의 ‘만남’이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소설 「대성당」에 암시적으로 나타난 ‘기독교’를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많은 경우, 로댕의 <대성당>을 보고 독자들은 ‘놀람’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두 작품에 나타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기본적으로 ‘대성당’의 가치는 외양의 아름다움과 우뚝 솟은 높이에 있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 있다는 의견에 이를 수 있으며 나아가 ‘기독교’의 본질에도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평가하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다. ‘기독교’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는 ‘종교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애초 ‘기독교’를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하였으므로 ‘기독교’의 사랑에는 ‘사람과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물론 이것은 강요 혹은 설득의 어조가 아니라 설명의 어조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소설 교육 연구 -기독교 대학 핵심 교양 교과목을 중심으로	발표자	조경덕
		논찬자 (소속)	김개영 (목포대)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짚어주신 조경덕 선생님의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최근 교계에 대한 사회 일반의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재단 대학의 교양 과목을 맡고 있는 교수자로서의 성찰과 고민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글이었습니다. 근대 이후 소설문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앞장서 해체해온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초월)과 신의 섭리가 배제되는 대신, 세계에 대한 경험적 인식과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소설문학을 통해 기독교적 가르침을 전달한다는 것은-그것이 기독교 문학이라는 타이틀을 전면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애초부터 많은 한계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텍스트 선정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할 위험성이 큼니다. 발표자께서 기독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적 정신을 추출해낼 수 있는 텍스트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고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은 제목이 주는 압도적인 종교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독교 신앙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설에서 기독교가 가진 구원 내지 본질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 작품은 타인과의 공감에 주는 놀라운 세계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기독교적 사랑의 개념 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로 하여금 공감력,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자는 종교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다른 종교나 사상에서도 이야기될 수 있지만 후자는 기독교 교육이 가진 차별성을 드러내 주는 데에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이 작품의 맹인이 하나님을 은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시각능력이 없어도 대상을 더 또렷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세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맹인의 주도로 결국 주인공 또한 눈을 감은 채, 그 맹인의 세계-어쩌면 초월적 세계라도 좋을-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과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은 소설의 보편적 언어와 기독교의 신앙적 언어가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반응 중에 신앙적 언어에 해당하는, “두 사람 이상의 힘을 합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대성당)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는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텍스트적 의미를 벗어난 과잉 해석-기독교적 편협성에 기반한-으로 비칠 소지가 큼니다. 대학의 교육 현장은 비기독교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언어가 신앙언어로 왜곡된다고 느낄 경우, 그들의 반감은 더욱 커지고 오히려 교육적 효과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설문학과 기독교, 보편언어와 신앙언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가가 대학 내 기독교 교육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 님의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국립목포대학교
----------------------	---------